

제3장 씨족의 역사

1. 성씨 개요

성씨(姓氏)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단계현연집단(單系血緣集團 unilineal kin group=lineage)의 한 명칭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씨는 한자의 표기이며 이름 앞에 붙어 가계(族系)를 나타내는 동계혈연집단(同系血緣集團)의 명칭을 가리키고 이는 바로 중국식 출자율(出自律 descent rul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씨가 사용된 때부터는 적어도 단계출자체계(單系出自體系 unilineal descent system) 중에서도 부계적(父系的) 출자(出自)를 진제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계출자체계나 집단(partilineal descent system or group)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처음에 중국에서는 성은 여자가, 씨는 남자가 칭하는 것으로서 역시 성과 씨가 분리되어 사용되다가 진대(秦代) 이후로 씨=성이 되어 남자도 성을 칭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로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¹⁾

1) 삼국이전의 성씨

『사기(史記)』, 『조선전(朝鮮傳)』에는 ‘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峽’이라 하여 로인, 한음, 왕협은 로(路)·한(韓)·왕(王) 등의 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參)은 조선과는 지역이 다른 니계(尼谿)의 상(相)이고 성을 갖고 있지 않다. 위씨조선은 왕인 위씨를 중핵으로 하여, 로(路)·한(韓)·왕(王) 등의 성을 가진 중국계의 유력자군 상이나 장군으로 결합한 지배층과 영내 각지의 토착유력자를 흡수하여 구성된 연합국가로 알려져 있다.

1)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이상의 삼국 이전의 성씨는 기원전 2세기, 위씨조선의 성립기부터 낙랑·대방 군현시대를 거쳐 조선 북서부를 중심으로 4세기경까지 탁월한 세력을 과시한 왕·한 양씨를 비롯하여 17개 정도의 성씨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구 몇 번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해 온 중국계 씨족의 관칭(冠稱)이며, 그들이 토착호족이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²⁾

그러나 이와같은 설명은 조선 삼국의 왕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성명을 칭한 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칭성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의 칭성은 모두 중국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칭성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지만 그 이전에 칭성한 자를 모두 중국계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2) 삼국의 성씨

(1) 고구려의 성씨³⁾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나타난 고구려 성씨로 왕성 고씨(高氏)를 비롯하여 을(乙), 예(禮), 송(松), 목(穆), 우(于), 주(周), 마(馬), 손(孫), 동(董), 예(芮),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등 약 20여종이 보인다. 고구려 왕족의 성이 고성이라는 것은 413년에 고구려왕인 장수왕이 고련(高麗)을 자칭하여 진(晋)에 사절을 보냈다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이래 역대 제왕은 모두 고성을 칭하며 중국과 통하였던 것이다. 국성(國姓) 고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초경으로 알려지지만, 4세기 이전으로 소급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국성인 ‘해(解)’를 칭한 인물들 보면 소수림왕을 제외하고 모두 제5대 모본왕보다 이전의 국왕에 속하고, 또한 멀리 북부여왕까지 소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5세기 초의 고씨의 등장과 동시에 각종 姓이 중국 사서에 나타난다. 그 중에는 이름의 일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국에 간 사절로서 고·마·동·안(安)·예(餘)·예·강(江)의 성씨가 보이고, 장군으로서 손·고·갈(葛)·맹(孟)·을지·온(溫)씨가 등장한다. 또한 권신으로서 유명한 천(泉 : 淵)씨도 보인다.

이들 성은 거의 중국식의 단성이며, 혹은 직접적으로 중국성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 고·손·맹은 고조선, 낙랑의 성과 공통되기도 한다. 이것은 고구려가 다름 아닌 그 고도를 흡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427년의 평양천도는 국가의 성립기만을 한층 굳히고 중국계 집단이 고구려 왕권 아래에

2)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アアジ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日本古代史講座 第10卷, 學生社, 1984.

3) 위와 같음.

흡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계보나 계승의 문제와는 달리 위의 여러 성을 고구려의 성씨로 간주하고 있다. 고구려는 각 성을 붙인 다수의 유력한 족장집단을 조직하고, 그들은 국제교섭이나 군사활동에 활약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4세기 이전에 속하고, 중국사서에 보이는 위의 성씨와는 전혀 합치되지 않는 각종의 姓氏가 전하는데, 예를 들면 국(克)·중실(仲室)·소실(少室)·위(位)·위(尉)·부정(負鼎)·락(絡)·대실(大室) 등의 사성(賜姓)과 예·송·우·안(安)이 왕비성으로 되어 있다. 북성인 을지, 『일본서기』의 이리(伊梨)·도수류(都須流)·현무(玄武), 고구려중원비(高句麗中原碑)에 다해(多兮) 등의 북성은 중국북성의 차용이라기 보다는 거의가 러어(麗語)를 북성의 한자로 옮긴 것이며 그 때문에 원래 토착적이며 거기에 고유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구려사회의 기저에는 중국식의 단성보다도 토착적인 북성이 많이 쓰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굳이 단성만 말하면 중국을 의식한 경우에는 중국식의 단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착적인 북성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동일인이면서 중국사료에 단성으로 ‘친개소문(泉蓋蘇文)’이라 하면서, 일본사료에 북성으로 ‘이리가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2) 백제의 성씨

백제의 성씨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왕성 여(餘, 또는 扶餘)씨를 비롯하여 사(沙), 연(燕), 해(解), 목(木), 힘(勿), 진(眞), 국(國), 백(百) 등 8대 족성과 이외에 장(張), 목(沐), 미(糜), 저(祖), 우(于), 고(高), 양(楊), 회(會), 천(贊), 왕(王), 진(陳), 사마(司馬), 수미(首彌), 고미(古彌), 흑차(黑戩) 등의 성씨가 보인다. 또한 삼국통일 직후 백제계의 것으로 보이는 불상들의 명문에 전씨(全氏), 조씨(趙氏), 정씨(鄭氏) 등의 인명이 나왔고 그것은 출토된 지역이나 양식으로 보아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수서』 백제전에는 ‘국중의 대성으로 관족의 사·연·힘·해·정·국·목·묘씨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진성(眞姓)은 『수서』에 정(貞)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지만 진묘(眞慕)·진묘(眞牟)·저미·사미 등의 북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해성(解姓)은 국성 혹은 왕족에 가까운 대족의 성이며, 북성 ‘비리(鼻利)’는 해(解)의 훈일 것이다. 연성(燕姓)은 북성 연비(燕比)에 상당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 중에서 고구려의 ‘해(解)’ 성과 달리 백제의 해성은 5세기초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성(沙姓)은 해당 시기(475~538) 이후도 유능한 인물을 배출하며 크게 활약한 씨족이었다. 8대성의 필두를 차지한 이유도 이 이후의 사씨의 세력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이것은 사(斯)·조(助)·수

4)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アシ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 참조.

5)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首) 등의 단성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책에 보이는 복성인 사택(沙宅)·사탁의 약칭인 것은 확실하며 목성(木姓)은 목(沐)으로도 쓰였고 복성 목라(木羅)·목도를 단성화한 것이었다. 여러 문헌에 하나의 예도 보이지 않는 험은 도의 잘못된 이름 국성도 해당 시기(538-671)에 한정되어 있었고 국도를 의미하는 주리(州利)·좌루(佐魯)·전리(全羅)·사비 등이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었을까.

위의 백제의 성씨는 『수서』의 대성, 대족이 장기간의 변천과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비시대(538-671)에 이르러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하는 대성의 수가 8이 아니고 7이라는 점이 의문이다. 또한 좌부와 관련된 위의 성씨 외에 다수의 성씨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고(高)·왕(王)·장(張)·빙(憑)·양(楊)·회(會)·진(陳)·허(許)·단(段)·마(馬) 등은 중국계 인사(人士)의 존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계로는 과야(科野)·물부(物部) 백제적인 고이(古爾)·재로(再魯)·흑취(黑醜)·동성(東城)·문휴(汶休)·곡나(谷那)·답채(答載)·억례(億禮) 등의 성씨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주장은 백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씨를 토착이 아닌 외래계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 성씨의 특색은 복수의 상호 대응하는 단성과 복성이 있고, 이어서 다종다양한 성이 쓰여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도 오부를 중심으로 하는 유력계급에 머물렀다고 생각되는 점이 중요하다.

(3) 신라의 성씨

신라 성씨는 『북제서(北齊書)』 하청4년(565) 2월 갑인조에 ‘조칙을 내려 신라국왕 김진흥(金眞興)으로써 사지컬·동이교위·낙랑군공·신라왕으로 삼다’라는 중국측 기록에서 처음으로 ‘김진흥’의 성명이 쓰여져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국성은 6세기 중엽 중국과의 교류과정에서 비로서 김성을 칭하였다.⁶⁾

그러나 삼국의 성씨의 시작을 왕성이 처음으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잡고 여타 인물의 경우나 삼국사기 등에 등장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이라는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여타 인물의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되거나 동이전 등에 성씨가 확인되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예를 중국계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6)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アシ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日本古代史講座 第10卷, 學生社, 1984.

3) 남북국시대의 성씨

(1) 발해의 성씨)

고구려가 멸망 한 뒤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을 중심으로 건국된 발해의 성씨에 대해서는 남송(南宋)의 홍호(洪皓)가 지은 『송막기문(松漠紀聞)』에 “그 왕은 지난날 ‘대(大)’로서 성을 삼았고, 유력성씨로는 고(高)·장(張)·양(楊)·두(賈)·오(烏)·이(李)의 불과 몇 종에 지나지 않았다. 부곡이나 노비와 같이 성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주인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송막기문』의 기록은 성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한 신분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며, 나아가 7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엽에 걸쳐 성씨를 가졌던 사람들은 발해사회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평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들이 성이 없는 부류이나, 부곡이나 노비와 같이 주인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발해사와 관련되어 시기상으로 698년 발해건국으로부터 938년까지의 240여년간에 활동한 인물중 성씨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문헌상에서 수합한 결과 15명의 ㅈ을 포함하여 240여명의 발해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성씨는 아래의 62개 성씨로서 2명 이상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20여개 성씨에 이른다.

高·公·金·多·達·大·德·馬·慕·冒·木·卯·門·味·朴·旁·
裴·舍·史·薩·尙·釋·孫·成·受·愼·申·辛·失·阿·安·謁·
楊·藤·茹·呂·列·烏·吳·王·衛·劉·聿·隱·李·已·壹·任·
張·正·趙·朱·周·智·陳·晉·蔥·崔·馮·賈·海·洪

발해 성씨들은 종래 발해의 민족적 귀속에 관한 논거의 하나로서 중국학계에서는 가능한 말갈(靺鞨) 성씨나 중국 성씨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북한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구려(高句麗) 성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피상적인 선입관에서 나온 것으로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한 주장은 아니었다. 결국 종래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나 당시 주변민족의 성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발해는 건국과정부터 고구려유민과 말갈민이 협력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멸망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발해의 성씨를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민족의 성씨에 어떠한

7)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것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구려와 말갈계를 성씨만으로 분류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유성자(有姓者)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함께 발해사회의 종족적 구성을 감안할 때 말갈계가 아닌 인물을 고구려계로 분류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고구려계인 경우라도 말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우위로 인하여 성씨를 소유한 인물이 많았고 성씨 자체가 중국적인 소산인 이유로 하여 이들 유성인(有姓人)을 다시 중국계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발해전국에 중국계 인물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방법도 발해성씨의 연원을 구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각 성씨의 연원을 추정해 보면 고구려계 성씨로는 '고·이·왕·장·양·마·하·배·조' 등을 들 수가 있고 '실·아·주·오·비·율·공·섭·이·북·모·이·지·사'씨는 말갈계 성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 '박(朴)'씨와 같이 신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성씨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성씨를 통하여 양국간의 교섭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통일신라의 성씨)

AD 565년의 김진홍 책봉기사가 한자 성씨를 쓰기 시작한 해한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경우 그 이전 몇몇 성씨로 보이는 인명이 있다고 하나 적어도 진흥왕 이전의 것은 계보론 따라 소급하여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박(朴), 석(昔) 양성은 김(金) 성과 더불어 혹은 뒤이은 시기 즉 6세기 중엽 및 후반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통일과정과 그 이후(분문왕-신문왕)을 보던 김, 박 성 이외에 살(薛), 장(鄭), 손(孫), 최(崔), 전(全), 수(水)의 예가 나타난다. 전씨의 경우는 불상의 명문으로 673년경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불상은 백제계의 것으로 보이므로 전씨 역시 백제성으로 추정된다. 수씨는 웅주(熊州) 지역의 경흥법사(憬興法師)의 성씨로 기록되어 백제계의 성씨일 것이다. 백제성은 신라에 의해 정복된 후 성씨소유집단으로서의 의미·특히 특권향유계층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설, 정, 손, 최 이외의 6부성 중 배(裴)씨로는 720년 성덕왕대에 배부(裴賦, 대야찬(신라본기 성덕왕 19년), 이씨로는 경덕왕 22년(763)의 이순(李純, 대내마)(신라본기 경덕왕 22년), 이준(李俊, 『삼

8) 阿氏와 木氏는 고려 전기에 귀화한 인물중 女眞系 인물의 성씨에서만 확인되는 사실도 이들 성씨가 말갈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研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참조).

9) 李紇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국유사, 궤은 산흥패관조) 등이 뒤이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6부성이 일정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이 6부성의 취득현상이 통일과정 및 통일직후에 나타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 석, 김 3성, 신김씨(가야계) 및 6부성 이외의 성씨로서 통일 후-경덕왕대까지 약 100년간의 기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본서기』 지봉 원년조에 보이는 소양신(蘇陽信)이 유일하다. 동서 천 무 7년의 가랑정산(加良井山), 동 8년 2월 감물나(甘勿那), 동 8년 10월 살루생, 동 9년 5월 고나(考那) 등이 있으나 이것은 고유명이거나 성씨라도 겨우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공왕대에 고(高), 오(姚) 등이 보이고, 애장왕대의 유석(劉碩), 헌덕왕대에 장웅(張雄) 등의 새로운 성들이 보이며 민에왕대의 장승(張升), 장건영(張建榮), 장보고(張保古), 정년(鄭年), 경문왕대의 요극일(姚克一) 등 태공왕 이후 약 100년간에는 약간의 보다 구체적인 변동과 성씨의 다양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양(楊), 양(梁), 소(蘇), 임(林), 왕(王), 신(申), 윤(尹), 원(元), 모(毛), 종(宗), 백(白), 해(許), 민(閔), 홍(洪), 강(康) 등이 보이고 이런 현상은 말기로 갈수록 가중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씨의 취득은 왕성 김씨로부터 비롯하여 박, 석, 신김씨, 6부성 등 양식에 따른 구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시간적 순서와 관련되면서 그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보이는 것처럼 중국문화의 충격과 더불어 중국성에 관한 인식이 생기고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해도 갑자기 모든 집단 모든 인물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석문, 사기, 유사 등의 기록을 보아도 특별히 성씨를 기록하는 경우나 인물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혹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모두 명(名) 혹은 작호(爵號) 등으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론 성씨가 기록된 인물의 경우도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의 인물로서 적어도 그 인물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즉 중국과의 왕래 내지는 중국과 간접적인 접촉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씨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몇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 (1) 중국에 대한 사신의 경우(김춘추 등)
- (2)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의 경우
 - ① 나당류학생 및 숙위사자(이동, 최치원 등)
 - ② 불가의 승려로 중국에 유학한 경우
 - ③ 중국에 건너가 살던 일반 거주인(장보고, 정년)

(3) 중국과의 관련이 예상되는 경우

- ① 중국문물(유교 및 한자문화)에 이해가 깊은 인물(박도유, 김유교, 요극일, 왕거인 등)
- ② 기술적으로 중국과 관련이 예상되는 인물(황진지). 성씨는 적어도 나대에 있어서는 사회체제로서의 계급으로까지서는 몰라도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양국의 고유성 혹은 중국식 성씨는 통일신라에 들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 후에 이들 성족(氏族)은 신라의 지배하에 편제되면서 성씨의 사용을 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정치적로나 사회적인 특권이 주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통제되었음이 분명하다. 혹은 고구려명명지배족인 안승(安勝)과 같이 사성(賜姓)을 하여 중앙으로 편제하여 버리거나 지방관 등에 의해 피지배족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살펴보면 백제인의 성씨가 통일직후 역사의 무대에서 일단 중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그 당시 성씨소유집단이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집단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성씨취득의 일반화에 따라서 이렇듯 통한 특권향유의 현상은 점차 소멸해 갈 것이다. 그러나 성씨취득의 특권향유층으로서의 의미는 적어도 나말까지에 한해서는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4) 고려의 성씨¹⁰⁾

후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배계층인 호족은 사성·모성·자칭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군현 조직체제와 후삼국시대 호족의 군현 지배기구를 이어받은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사업을 완수한 다음 전국 군현의 개편작업과 함께 전국 군현별로 각기 토성을 분정(分定)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씨체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귀족·관료에서 점차 양민층으로 확대되어갔으며 친민층의 양민화에 따라 성씨를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늘어갔다.

한성화 그 자체가 중국 성씨제도의 모방인 이상 고려왕조의 전국적 성씨 분정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씨족지·성씨록의 편찬·반포 및 '천하군망표(天下郡望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세기 초를 기준하여 우리의 성씨가 총망라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자후 당대(唐代)의 '군망표'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명성자를 모방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씨 등 16성(朴·沈·河·玉·明·俊·昔·諸·益·森·邦·芳·價·勝·濯·承氏)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의 성씨가 모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박·석·김씨와 같은 신라의 종성은 본디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이래 호족들의 중국식 성으로 되어가는

10)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

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일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이밖에도 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세금 징수나 조역의 필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는 천민층도 본관을 호적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같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그때부터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기본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이다. 성씨체계가 확립된 고려 초기부터 15세기 지리지가 편찬될 때까지 모든 성은 본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군·현·진·촌 및 향·소·부곡·처·장·역·수 등 시조의 출신지나 주민의 거주지별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의 개편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읍 본관으로 한 것만 남고 진·촌·향·소·부곡 등 일내와 특수지역을 본관으로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분 소멸되었다.

5) 조선시대의 성씨¹¹⁾

고려초에 확립된 성씨체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분관·분파 등 성의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다.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성씨체계도 다시 정비되었다.

우리 성씨의 수는 문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전체 250여성 가운테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 지리지 소제 성씨(망성 포함)를 모두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포함되어 있다.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것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문에 무려 496성이나 수록되었다. 여기에 한성화 이전의 고유명자(固有名字)와 이미 소멸된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의 숫자는 15세기 지리지 소제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무성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화척(禾尺), 향·소·부곡민, 역·진민

11)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

등 천민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성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들에게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전기(15, 16세기)까지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므로 무성층이 그만큼 많았다. 그렇게 많았던 천민층이 16세기말부터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운 성을 가지게 된 계층이 격층해 갔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된 것은 성의 대중화를 촉진시켰으며 1909년 새 민지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성과 본을 가지게끔 법제화되었다. 무성인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때를 기하여 새 성을 갖게 되자 갖가지 회화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사례 1

성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서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주었다.

사례 2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을 따랐다.

사례 3

김·이·박씨가 많은 데서 그러한 대성을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이 때문에 증진의 대성명문들은 그 수가 더욱 늘어갔다. 가령, 전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이씨, 경주지방 출신은 김씨나 최씨 하는 식으로 출신지의 대성이나 분벌을 본떠서 자기 성을 삼은 경우가 많았다.

사례 4.

오늘날의 회성·벽관 가운데 당시 경찰이 호구조사를 할 때나 호적담당 서기가 호적을 기재하면서 한자의 획을 잘못 적은 데서 비롯된 것도 적지 않다.

한편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문들의 본관은 우월시되고 무명의 벽관은 회성·벽성과 함께 천시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사족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반면, 관인이나 현조를 내지 못한 본관은 그 본관을 바꾸는 추세에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 수가 수십이 넘던 성 가운데 조(曹)는 장녕 조씨, 헌(韓)은 청주 한씨, 삼(沈)은 침송 삼씨, 문(文)은 남평 문씨 하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이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을 개변하는 경우는 많았다. 왜냐하면 성보다는 본관에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계(家格)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리의 사족화에 따라 본관의 개변이 자행되었고 왜란·호란 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朱)씨는 신안(新安), 공씨는 곡부(曲阜), 천씨는 영양(潁陽)으로 바꾸는 예가 있었다.

6) 일제시대의 성씨¹²⁾

국민 모두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된 시기는 신분과 계급제도가 타파된 한말에 와서 단행된 것이며, 그것이 일제의 식민통치과정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우리의 성씨사상 최대의 수난기는 무엇보다 일제 말기의 이른바 창씨개명이라 하겠다.

일제가 내선일체·황국신민화의 일환에서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도록 강요했던 창씨개명은 성이란 일생토록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이 철저한 우리 민족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웃지 못할 비극이 연출되었다.

그때 각 씨족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창씨를 하면서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 고유 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남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

사례 1

이기(李家), 김본(金本), 배정(裴井), 오산(吳山), 장전(張田) 하는 식으로 본성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였다.

사례 2

남양(南陽)·수원(水原)·경산(京山)·광산(光山) 하는 식으로 본관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

사례 3

시조전설이나 연고지를 상징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예컨대, 괴평윤씨의 경우 평소(平沼)라 하였는가 하면, 한산이씨는 본관에다 묵은(牧隱 李稿)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묵산(牧山)이라 하였고, 청주한씨는 청주의 고호인 서원(西原)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

이러한 일본식 창씨는 입부혼인(入夫婚媾)·서양자(庶養子) 제도와 함께 1939년만부터 실시되었다가 일제가 패망한 뒤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의 조선성명복구령이 법령 제122호로 공포되자 창씨개명한 호적부 기재와 이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훈령 및 통칙은 그 창조일부터 무효가 되었다.

7) 현재의 성씨

우리 성씨에 대한 전체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시기는 1930년도인데 이때 전국에 250성이 있음이

12)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lib.net>).

국세조사에서 밝혀졌다. 8·15광복 후 최초의 성씨조사는 1960년도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로 실시되었는데 30년 전의 조사보다 8종이 많은 258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부수립 이후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남한만의 조사라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 결과와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많다.

1985년 1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1975년도의 247성에 비하여 25성이 새로 추가되어 272성에다 본관은 3, 435개로 나타났다. 이 때 나타난 인구 100명 미만의 희귀성씨 40여 개는 호적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와 고아출신이 임적하거나 외국인의 귀화 때 생겨나는 등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관수를 보면 김씨가 285, 이씨 241, 박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조(趙)씨 56, 윤씨 44, 장(張)씨 63, 임(林)씨 60개로 각각 집계된다.¹³⁾

2. 군포의 주요 씨족

2000년 현재 군포시의 가구와 인구는 77,597가구, 262,593명이며 성씨는 22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인물 3 제외)¹⁴⁾ 이 가운데 인구 1명 성씨인 흥(興)씨 외 24개를 포함하여 인구 100명 이내의 소규모 성씨가 100개이다. 그리고 인구 1000명 이내는 용(龍)씨 외 53개가 있고 인구 1,001~2,000명인 성씨가 나(羅)씨 외 16개¹⁵⁾ 있다. 그리고 군포시 성씨 인구상 중간규모인 인구 2,001~3,000명 성씨가 손(孫)씨 외 5개¹⁶⁾, 인구 3,001~4,000명 성씨는 황(黃)씨 외 5개¹⁷⁾, 인구 4,001~5,000명의 성씨는 신(申)씨 외 4개¹⁸⁾, 그리고 인구 5,001~10,000명의 성씨는 장(張)씨 외 3개¹⁹⁾가 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인구 1만명이 넘는 다수 인구를 점하고 있는 성씨는 5개가 있는데 정(鄭)씨(10,939명), 최(崔)씨(12,319명), 박(朴)씨(20,796명), 이(李)씨(40,389명), 그리고 김(金)씨가 54,748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군포의 주요 씨족의 가구 및 인구자료이다.

13) 이상은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

14) 이하는 통계청 홈(<http://kosis.nso.go.kr>).

15) 민(閔), 구(具), 강(丁), 권(郭), 성(成), 임(任), 주(朱), 전(田), 유(兪), 노(盧), 남(南), 유(劉), 배(裴), 허(許), 심(沈), 조(曹).

16) 백(白), 양(梁), 문(文), 고(高), 전(全).

17) 홍(洪), 권(權), 서(徐), 안(安), 유(柳).

18) 오(吳), 송(宋), 임(林), 한(韓).

19) 강(姜), 윤(尹), 조(趙).

성씨	본관	가구수	인구수
곽(郭)		309	1,100
	원풍	205	743
권(權)		319	1,063
	능성	256	836
갈(葛)		16,218	54,748
	경주	3,186	10,664
	광산	1,454	4,986
	칭풍	198	725
문(文)		709	2,405
	남령	645	2,163
백(柏)		6,153	20,796
	반남	258	937
	죽산(죽주)	114	374
송(宋)		1,268	4,224
	여산	542	1,793
심(沈)		541	1,795
	칭송	481	1,585
안(安)		1,131	3,779
	순흥	875	2,882
양(梁)		681	2,278
	남민	415	1,409
이(李)		11,924	40,389
	전주	5,151	17,396
	취산	302	1,055
임(林)		1,383	4,684
	경매(경상)	414	1,405
쟁(鄭)		3,205	10,939
	동래	638	2,248
주(朱)		360	1,151
	산안	313	993
최(崔)		3,650	12,319
	경주	1,489	5,036
한(韓)		1,449	4,856
	침주	1,365	4,546
홍(洪)		1,019	3,437
	남양(당홍계)	762	2,613
	남양(포홍계)	74	255
참고	군포사	77,597	262,593
	경기도	2,671,580	8,937,752

<자료>

1. 이 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기준 '행정구역(구시군)/성씨·본관별 가구 및 인구' 통계 (<http://kosis.nso.go.kr>)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수록된 성씨와 본관은 보고사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외에 각 성씨별 다수 본관을 2-3개 첨가하였다.

1) 현풍 박씨(玄風 郭氏)

박씨의 본관은 현풍, 청주, 선산, 해미, 봉산, 여미 등 6본이 있었으나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풍에서 분적된 것으로서 현재는 현풍과 청주박씨 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풍박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한 광경(郭鏡)으로 전한다. 현풍박씨 세보에 의하면 그는 본래 관서지방의 홍농인(弘農人)으로 고려 때에 들어와 1138년 과거에 급제하고 문하시중평장사, 금자광록대부 등에 이르러 포산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포산(苞山)으로 하여오다가, 조선시대에 포산이 현풍현(玄豊縣)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향을 현풍으로 하게 되었다.

현풍 박씨는 시조(始祖) 광경(郭鏡) 이래 고려 말까지 11세 전후에 걸쳐 개생(開姓)을 중심으로 경기 일원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 초부터 종파(宗派)인 5세 광기정(郭基正)의 후손들은 중부(中部), 호남(湖南), 서북(西北)지역으로 세거지를 개척하였고, 차손(次孫)인 5세 광한정(郭漢正)의 후손들은 관향지(貫鄉地)인 현풍(玄風)을 중심으로 영남일대에 세거지를 확대함으로써 포산박씨(苞山郭氏)를 크게 기호계(畿湖系)와 영남계(嶺南系)로 나누게 되었다.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 나타난 현풍박씨의 구성을 보면 기호계 45파, 영남계 33파로 되어 있다. 기호계는 주로 경기도 이천, 파주, 시흥 황해도 장연, 전라도 임실의 주천, 정음, 영암, 무안, 충청도 금산, 보은, 청주, 경상도 봉화, 상주, 함천 등지에 세거하였으며 영남계는 경상도 현풍, 고령, 영천, 청도, 장영, 창원, 남해(서면), 전라도 금산(남일면), 진도(근내면), 원주, 황해도 봉산(초와면), 평안도 용강(다미면) 등지에 세거하였다.

이 중에서 시흥이 오늘날 군포지역이므로 현풍박씨가 군포지역에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군포지역의 박씨 세거지는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이며 현재 30여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박남현 증언) 그리고 군포시 부곡동 산 115에 조선 중기 부담인 광황(郭隍)을 비롯한 박씨 분종의 선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에는 박씨의 재실인 숭모재(崇慕齋)가 박씨 묘역 아래에 있다.

일제시대인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시흥군 남면장을 한 사람이 광주영(郭柱莢)이고 근대에도 박윤수(郭潤洙)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면장과 군포읍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현풍박씨가 이 지역의 세거씨족임을 짐작케 한다.

2) 능성 구씨(綾城 具氏)

시조는 고려 말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을 지낸 구존유(具存裕)로서 그는 신안주씨(新安朱氏) 주진(朱潛)의 사위인데 주잠이 1224년(고종 11) 송(宋)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을 때 몽골의 침입을 피하여 자신을 포함한 8하사와 고려로 망명하면서 구존유를 동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주잠이 능성에 은거하면서 능성주씨로 관직한 것과 같이 구존유도 생활근거지였던 당시의 지명에 따라 본관을 능성구씨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조로부터 6대 후인 고려 말, 조선 전기에 관사파(判事派: 賢佐), 사람중파(侍郎中派: 英良), 좌정승파(左政丞派: 鴻), 판안동파(判安東派: 成亮), 도원수파(都元帥派: 成老), 낭장파(郎將派: 賢補), 감무파(監務派: 賢器), 참판파(參判派: 成美), 문천군사파(文川郡事派: 妥立) 등의 9파로 갈리는데 그 중 도원수파, 판안동파, 좌정승파 등 3파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자신이 크게 번창하여 이들 3파가 오늘날 구씨 전체인구의 약 80%(도원수파만 40%)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치관(致寬)이 영의정을 지낸 것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상신(相臣) 2명, 공신 9명, 부마(駙馬) 3명을 배출하였다. 『능성구씨사료집』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총 562명의 과거급제자들 있었는데 그 중 진사 144명, 문과 55명, 무과 363명으로 무과출신이 65%나 되어 무관집안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파별로 보면 도원수파 359명, 판안동파 72명, 좌정승파 42명으로 역시 이들 3파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무과출신 가운데 영조 때까지 장신급(將臣級)이 9명이나 나왔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장신 총수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은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지낸 사직(思稷), 훈련대장 등을 지낸 평(宏), 이영대장인 인후(仁焄), 총융사(摠戎使)인 인기(仁暉), 이영대장인 문치(文治), 총융사인 갑(鑑), 훈련대장인 성임(聖任), 훈련대장인 선복(善復) 등인데, 이 중 평·인후·인기는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공신으로 중종반정(中宗反正)의 정국공신(靖國功臣)인 현휘(賢暉)·수영(壽永), 성종 때 좌리공신(佐理功臣) 치관·문신(文信) 등이 있다. 이 밖의 인물로는 고려 말 좌시중(左侍中)을 지내다가 고려가 망한 후 조선 태조가 좌정승을 주고 불려도 응하지 않아 좌정승파의 시조가 된 홍(鴻), 중종의 부마 사연(思彦), 인조의 외조부이며 이조판서·좌찬성·승록공신(崇祿功臣)에 오른 사맹(思孟), 시문에 뛰어나고 관학사, 참판, 대사헌을 지낸 봉령(鳳齡) 등이 있다.

군포에는 도마등에 20여호가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3) 경주 김씨(慶州 金氏)

경주 씨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후손으로서 부안김씨, 나주김씨, 언양김씨, 삼척김씨, 울산김씨 등으로 분화되었다. 부안김씨는 경순왕의 아홉 아들 가운데 장남인 마의태자 김공일(金公鎰)의 후손으로 전해지며 둘째 아들인 김황(金鎭)의 후손은 나주김씨, 다섯째 김석(金錫)은 의성김씨, 일곱째 아들인 김선(金諤)은 언양김씨, 여덟째 김추(金錡)는 삼척김씨, 아홉째 김덕지(金德執)는 울산김씨가 되었으며 셋째 김명중(金鳴鍾)은 경주김씨의 영분공파(永芬公派), 넷째 김은열(金殷說)은 경주김씨 대안공파(大安公派 혹은 殷說公派)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넷째 아들 김은열의 후손이 가장 번창하였다고 하였고 한다. 한편 경주김씨는 조선시대까지 총 600여 개의 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270여 개 본관만 남아있다.

군포의 경주김씨는 대안공파의 후손으로 대안공파의 중시조인 김인관(金仁瑄)으로부터 15대손인 김적(金稷)이 지금으로부터 420~430년 전인 16세기 후반 현재의 군포시 용호마을(요품)에 은거하면서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군포의 경주김씨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산본 개발과 함께 요품이 개발되면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웃인 신기(新基) 마을을 비롯해 타지로 이주하였다.

1953년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군포시에 해당하는 시흥군 남면 당리에 거주하는 경주김씨는 모두 57호였으며 1999년 무렵에는 35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산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군포의 토착성씨가 외부로 이주하거나 외부에서 다양한 성씨가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향촌사회질서가 변질되기도 되기도 하였다.

4) 광산 김씨(光山 金氏)²⁰⁾

광산김씨 시조인 김흥광(金興光)에 대해서는 『광산김씨 정유대동보(光山金氏丁酉大同譜)』에는 신라 45대 신무왕(神武王)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의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광산김씨 문중에서는 시조 김흥광을 신라 45대 신무왕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김씨의 유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탈해왕조 9년(서기 65년) 3월조에는 왕이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호공(狐公)을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였다. 그가 시림에 이르러 보니 금빛으로 된 조그만 꿩이

20) 광산김씨대종회(<http://www.kwangsankim.or.kr>).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담이 그 밑에서 울고 있으므로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 꾀책을 가져오게 한 다음 이를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나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군신들에게 이르기를 “이 어찌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거두어 길렀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람에 따라서 아주 총명하고 지력이 뛰어났으므로 이름을 알지(閼智)라 하고 그가 금궤에서 나왔음을 연원하여 성(姓)을 김씨(金氏)라 하였다. 또한 시립을 계림(鷄林)이라 하고 이로써 국호(國號)를 삼았다고 하였다. 그후 알지는 세한(勢漢)을 낳고 세한은 아도(阿道)를 낳고 아도는 수급(首留)을 낳고 수급은 옥보(郁甫)를 낳고 옥보는 구도(仇道)를 낳고 구도는 신라 13대 왕 미추(昧鄒)를 낳았다. 알지의 후손 우징(祐徵)이 신라 제 45대 신무왕(神武王, ?-839)이며 그의 세 번째 왕자가 흥광으로 이가 바로 광산 김씨의 시조라고 한다.

신무왕의 할아버지는 해강대왕(惠康大王)으로 추봉된 원성왕의 아들 예영(禮英)이며 아버지는 성덕대왕(成德大王)으로 봉해진 균정(均貞), 어머니는 현목태후(憲穆太后)로 봉해진 진교부인(眞橋夫人) 박씨(朴氏)이다. 그가 아버지 균정과 함께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부상하게 되는 것은 헌덕왕 때였다. 812년(헌덕왕 4)에 균정은 시중(侍中)에 임명되었으며 김현창(金憲昌)의 난이 일어나자 우징 부자는 왕을 도와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흥덕왕이 즉자 그 사촌동생인 균정과 오촌 조카인 계룡(倣隆 : 희강왕)이 서로 왕위를 다투게 되었다. 이에 김명과 아찬(阿儼) 이창(利弘)·배훤백(裴萱伯) 등은 계룡을 받들고 우징과 조카인 예징(禮徵) 및 김양(金陽)은 균정을 받들어서 한때 궁궐에서 서로 싸워 균정은 전사하고 우징은 김양 등과 더불어 청해진(淸海鎮)으로 도망하여 장보고(張保皋)에게 의탁하였다. 싸움에 이긴 계룡이 즉위하여 희강왕이 되었으나 838년(희강왕 5)에 김명이 이흥 등과 함께 다시 난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閔哀王)에 올랐다.

838년(민애왕 1) 청해진에 의탁해 있던 우징 등이 장보고의 군사 5,000을 이끌고 민애왕을 토벌하기 위하여 진격해왔다. 김양·염장(閔長)·장변(張弁)·정년(鄭年)·낙금(駱金)·장건영(張建榮)·이순행(李順行) 등이 우징을 받들고 있었다. 이해 12월 민애왕은 김민주(金敏周) 등을 파견하여 무주(武州 : 지금의 光州)에서 토벌군을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패배하고 그 다음해 정월 달발(達伐 : 지금의 大邱지역)에서도 맞붙어 대패하였다. 민애왕은 난중에 월유택(月遊宅)으로 도망갔으나 병사들에게 살해당하고 우징이 왕이 되니 신무왕이다. 능은 제형산(弟見山) 서쪽에 있다.

광산 김씨의 시조리는 김흥광(金興光)은 당시 나라란이 어지러워 장차 난리가 있을 것을 예지하고 경주를 떠나 광산현(光山縣) 서일동(西一洞)(현 담양군 평장동)에 은거하여 광산 김씨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광산 김씨 5개파(문정공파, 문숙공파, 양간공파, 낭장공파, 사은직장공파) 중 양간공파의

후손이 현재 전국의 약 70%로 제일 많으며 그 후손에서 많은 명현들이 배출되었다. 조선 중기 역학의 태두요 성리학의 대가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그의 아들 김집은 유학(儒學)의 죽은 후에 등국18현(東國18賢)에 추앙되어 문묘(文廟 : 공자를 모신 사당)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다.

문원공 김장생의 증손인 만기(萬基)는 효종4년(1653) 별시(別試) 을과에 합격했으며 그가 속한 양간공파 의정공 허주공(紱, 김장생의 아들)파는 광산김씨 문과합제자 269(265)명중 74명으로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낸 광산김씨의 대표적인 파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광산 김씨는 남한에 총 174,912가구로 750,70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집성촌으로는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일원, 전남 나주군 왕곡면 옥곡리, 보성군 백백면 용산리, 양양군 군사면 모정리, 충남 논산군 일원, 경북 안동군 풍천면 신성동, 전북 고창군 일원,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황해도 봉산군 사죽면 대현리 등지이다. 군포 부근의 집성촌은 경기 시흥군 수암면 불왕리에 있다.

군포시 대야미동에 김만기 선생의 묘가 조성된 것은 생전에 숙종으로부터 강원도 43개면의 땅을 비롯하여 배야미땅이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손들은 당시 한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에 살지 않았다. 그 후 강원도 일대의 땅은 일제시기 토지 조사사업시 마등기로 잃어버리고, 배야미 땅도 담보로 모두 잃었으나 해방직후 12대 증손인 선일이 문중과 집안사람들에게 당시 돈 2만여원을 모금하여 김만기 선생을 비롯한 묘역 9천여평만을 구입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경 이곳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정부 보조를 받아 제실을 지었다.

5) 남평 문씨(南平 文氏)

남평 문씨 문중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시조에 대해서 “세상에 전해오는 옛 말에 호남에 남평군이 있고 남평군의 동쪽에 큰못이 있으며 못가에 천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있었다. 군주가 하루는 못 기슭 그 바위 밑에서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바위 뒤에 오색 구름이 감돌더니 문득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군주가 신기하게 여기며 곧바로 사다리를 만들게 영을 내리고 시종으로 하여금 올라가 보게 하니 석함이 있다고 하여 철사로 매어 당겨 내려오게 했다. 함을 열어 보니 함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피부가 옥설 같고 용모가 기이하여 마침내 군주가 대려와 양육하였다. 5세에 글과 사상을 자연히 통달하고 또한 무술이 뛰어나며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였다. 그래서 문자로서 성을 하고 다성(多省)이라 이름하고 평원으로 자를 삼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칭송하며 말하기를 문군은 밝기가 일월같고 맑기가 성전 같다 하여 호를 삼광이라 하였다. 14세에 대사도가 되고, 18세에 대사마 대장군이 · 삼중대광보국 · 삼한백상공신에 연이어 오르니 남

평개국백을 봉하고 대사대부가 되었다. 시호를 무성(武成)이라 내리었다.”라고 하고 있다.

남평은 백제시대는 비동부리라 하였고 통일신라시대는 현옹이라 고쳐서 무주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때는 남평 또는 영평이라 개칭하여 나주에 속하게 한 다음 감무를 두었다가 화순 감무로 겸임케 하였고, 조선조 때에는 감무를 따로 두었다가 다시 화순 감무로 겸임케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조 때에는 감무를 따로 두었다가 군 또는 나주의 속면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평 문씨는 시조 무성공으로부터 그 혈맥의 분파를 보면 크게 충선공파, 남제공파, 순평군파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보통은 5파로 나뉘어 부른다. 제1파는 충선공의 종파인데 문익집의 손이다. 주로 경남 거창과 함천 일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150여 호에 불과하며 현조 모계공 문위가 있는 충혜공파라 한다. 제2파는 충선공 문익집의 자손인데 거주 상황은 전남, 경남, 경북, 충남, 경기 순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그 수는 약 35만여 남평분씨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충선공파라 한다. 강성군파라 하여도 잘못은 아니다. 제3파는 문득준의 아우인 문득걸에서 분파 되었으며 주로 경북 영동·영주·봉화 등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200여 호에 불과하며 현조 감천군 문구가 있어 감천파라 한다. 제4파는 시간공 문착의 후예로서 주로 제주도 일대와 일본에도 많은 일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00여 호가 넘으며 육지에도 산거하고 있다. 문착의 호가 남제이기에 남제공파라 한다. 제5파는 순평군 문유필의 자손으로 그 수가 약 2,000여호에 달하며 함천·김천·영암·김제·공덕·밀양·평촌·진양·김해 등에 산거하고 순평군파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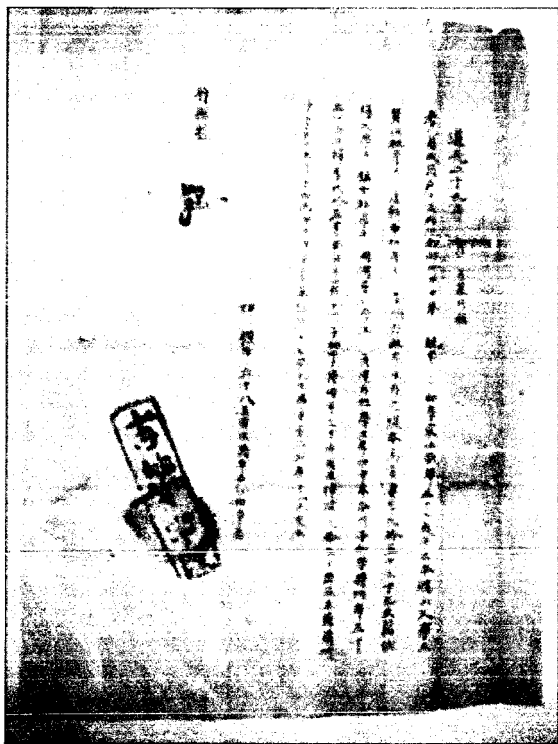
현재 군포에는 남평 문씨가 북쪽동 삼성마을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10여호 정도가 14세 이상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6) 여산 송씨(礪山 宋氏)

여산(礪山)은 전라북도 익산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여량(礪良)과 낭산(朗山) 두 현을 합친 이름으로, 1913년 이후에는 그 일부지역이 여산면으로 남아있다.

시조 송유익(宋惟翊)은 고려 때 진사(進士)로 나라에 훈공을 세워 여산군(礪山君)에 봉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여산송씨의 시조는 중국 경조(京兆)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 자영(自英)이다. 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인 유익(惟翊)은 여산송씨(礪山宋氏)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천익(天翊)은 은진송씨(恩津宋氏), 막내 문익(文翊)은 서산송씨(瑞山宋氏)의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淵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은진·진천 송씨와 함께 우리나라 송씨의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룬 여산 송씨는 시조의 아들 숙문



어산승세 고문서(파천현 남면 금정리(南面 持井里) 소재 유학 승임재(幼學 宋任載)52세)의 준호구(準戶口)(1849)

(淑文)이 고려 원종(元宗)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했고 증손 송례(松禮)는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원나라 도원수(道元帥) 후돈(忽敦), 부원수(副元帥) 다구(茶丘)와 함께 일본정벌에 참전한 후 충렬왕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분하시중(門下侍中) 판리사(判典理司)에 올라 여량부원군(驛良府院君)에 봉해져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손자대에 와서 윤(惟 : 개성원윤을 자림)을 파조(派祖)로 하는 원윤공파(元尹公派), 병영(邦英)을 파조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원비(元美)를 파조로 하는 소윤공파(少尹公派), 인(璘)을 파조로 하는 지신공파(知申公派), 서(瑞)를 파조로 하는 정가공파(正嘉公派) 등 크게 다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이 중에서 군포시에 세거해 온 이들은 정가공파이다. 언제부터 군포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정가동파 묘역군포시 재궁동 산 11번지에 가장 오래된 인물인 파조 송서(宋瑞)의 증손으로 한성관윤을 지낸 송복산(宋福山)인 것으로 보아 15세기 이후 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재궁종회(齋宮宗會)'로 불리는 재궁동 일대는 '묵음재(默諫齋)'라는 재실 및 강당이 위치하고 있고 묵음재의 뒤쪽 재궁동 산 11번지에는 송복산을 비롯하여 송숙기(宋叔琪), 송경(宋璟), 송찬(宋瑱), 송세광(宋洗光), 송유(宋瑀), 송유(宋瑜), 송로(宋路), 송복(宋璞), 송준철(宋遵徹) 등의 무덤 10여기가 모여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이름이 '재궁동'이 된 연유는 송씨 재실이 있는 연유했으며 '송지골'이라는 지명도 송씨가 동부송지를 역입한 후 이곳에 거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여산송씨정가공파재궁종회, 『永慕誌』, (1998), 「재궁종회의 내력」, 34쪽 ~ 35쪽)

현재 여산 송씨는 군포시 재궁동 지역에 약 10여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송요선(宋堯善, 안양시 거주)은 여산 송씨 관련 고문서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

7) 청송 심씨(靑松 沈氏)

심씨는 문헌에 63으로 나타나 있으나 4본을 제외한 나머지 59본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고 조선왕조 5백년 동안 정계를 주름잡은 10대 문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청송심씨는 상신(相臣)이 13명이나 되는데 그 중 영의정이 9명이나 되어 전주이씨의 11명에 비해 버금가는 것이다.

청송심씨는 고려 충렬왕 때 문림랑(文林郎)으로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수(沈洪守)를 시조로 받들고, 그의 증손 심덕부(沈德符)가 우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청성충의백(靑城忠義伯)에 진봉되어 후손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 심덕부는 태조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으며 판문하부사(判門下府使)와 영삼사사(領三司事)를 거쳐 정종 즉위년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의 아우 심원부(沈元符)는 고려 말에 여러 관직을 거쳐 전리판사(典理判事)에 이르렀으나 고려의 국운이 다하자 새 왕조(王朝)의 벼슬을 거부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節義)를 지켰으며, 후손들도 그의 유훈을 받들어 '선훈불사(先訓不仕)'라 하여 대대로 벼슬을 멀리 하였다.

일찍이 조선 개국(開國)을 시작으로 명문 별족의 지위를 굳혀온 청송심씨는 덕부의 아들 7형제 대(代)에서 가세가 크게 융성하여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루었다. 세종(世宗)의 장인이면서도 상왕(上王)인 태종(太宗)의 비위에 거슬려 끝내 왕명(王命)으로 죽음을 당했던 온(溫)은 청성군 심덕부의 다섯째 아들이자 병조 판서 박승(朴翬)에게 불평한 것이 상왕인 태종의 귀에 들어가 사은사로서 명에 다녀오던 중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에서 사사 당하였다. 이 때 그는 내 자손들은 대대로 박씨와 혼인하지 말라 고 유언하였다. 이후에도 청송심씨는 조선조의 명문별족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현재 군포시의 청송 심씨는 둔대동(대감마을)에 약 30여호가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8) 순흥 안씨(順興 安氏)

순흥 안씨의 시조 안자미(安子美)는 고려 신종(神宗)때 홍위위 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지내고 흥령현(興寧縣)에 정착 세거(世居) 하였으며 신희위상호군(神虎衛上護軍)에 추봉(追封)되었으므로 후손들은 순흥(順興)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안자미(安子美)의 세 아들 안영유(安永儒), 안영린(安永麟), 안영화(安永和) 등을 파조(派祖)로 한 3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 주자학의 태두인 안행(安瑄)은 안영유의 손자인데 고려 원종때 18세의 나이로 문과에 올라 도철의충전에 이르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설학전이라는 육영재단을 설치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등 유학 진흥에 힘써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하에는 백이정·우탁 등의 석학이 배출되어 이제현·이색 등에 계승되었으며 다시 권근·변계량 등으로 유학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내려왔다. 특히 안행을 제향하는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며 조선시대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과 함께 사람의 근거지로 발전되어 왔다.

순흥안씨는 조선 중종 때부터 명종대에 걸쳐 전성기를 누렸는데 중종때 공조판서를 지낸 안침과 좌의정을 역임한 안당, 명종때 호조판서를 지낸 안위와 좌의정에 올랐던 안현 그리고 안정 등이 유명하였다. 안침은 세조때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대사성·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지돈령부사에 이르렀으며 특히 해서에 능하여 서예가로도 명성을 얻었다. 안당은 『상종삼목』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증종때 이과의 옥서를 다스려 징난공신에 책록되었고 대사헌 및 각 조의 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 후 기묘사화때 조광조 등의 사립들을 구하려다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고 신사무옥때 아들 안치경과 함께 사시(賜死)되었다. 호조 판서를 역임한 안위는 『경국대전』을 전수한 석학이며 군략가였다. 안위의 동생 안현은 증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올라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또한 안침의 손자로서 문장과 글씨에 능하고 그림에도 뛰어난 소질을 지닌 안정은 증종때 현량과에 선발되어 양성 현감 등을 지낸 유능한 인재였다.

근대 인물로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투쟁한 안창호와 의병군을 이끌고 독립투쟁에 앞장섰으며 이등박분을 적실한 안중근이 유명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였던 안창남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등이 있다.

현재 군포에는 순흥 안씨가 광정동, 궁안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20여 가구 등이 세거하고 있다.

군포에 현전하는 순흥 안씨의 유물로는 순흥안씨 묘표(順興安氏墓表)가 있다. 순흥 안씨 묘표는 산본(山本)역에서 안산(案山)방면으로 도장(悼葬)터널을 지나 궁내(宮內)터널로 우회전, 쓰레기 조각정을 지나 순흥 안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연못을 지나면 좌측 길 옆에 있다. 순흥 안씨는 참의(參議) 안경운(安慶運)의 딸이고 증좌찬성(贈左贊成) 서신수(徐信修)의 부인으로서 자식이 없어 증재(從子) 유영(有寧)을 입양(入養)하였는데 유영(有寧)은 4남 1녀를 낳았고, 이중 3남인 용보(龍輔)가 영의정이 되어 추은(推恩)으로 정경부인에 증직(贈職) 되었다.

현종 15년(1849)에 세워진 이비는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과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단조로우나 조선후기 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비의 앞 면 자경(字樣)은 11.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4cm의 해서(楷書)로 서희순(徐熙淳)이 썼고 비문도 지었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이곳에는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족석(足石)만 있다. 묘소는 본래 수원 광탄면 언창리 금산에 있었는데 천장(遷葬)하면서 비석만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전한다.

9) 남원 양씨(南原 梁氏)

남원양씨는 제주의 세 성씨(고씨, 양씨, 부씨)이 시조 중에 하나인 양율리와 양탕의 후손이며 증시조인 양우경이 757년 공을 세워 남원백에 봉해지고 남원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남원양씨는 크게 양능양의 병부공파, 양주운의 용성군파, 양수정의 대방군파로 나누어지며 군포지역의 남원 양씨는 병부공파의 후손이며 김포지역의 양성지를 증시조로하는 문양공파로 다시 이어지고

양성지의 셋째와 넷째 아들의 후손으로 보여진다. 즉 문양공 양성지는 원(璦), 수(瑒), 찬(瑑), 호(瑒)의 네 아들을 두었는데 군포시 당정동 지역의 남원양씨는 넷째 양호(찬성공)의 손자 양운순(황주공)의 후손들이다. 아울러 부곡동 지역의 남원양씨 묘역의 양찬이 바로 양성지 3남인 양찬의 바로 그 묘로 1968년 서울시 목동에 있던 무덤을 도시 개발로 인해 이 곳으로 옮겨온 곳이다.

당정동 지역의 양운순(황주공과, 양성지의 증손) 후손들은 현재 이 지역에 10여 대씩 30여호 거주해 오고 있으며 선산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충청북도 진천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군포지역이 시흥시 남면일 때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변장을 역임한 양재호(梁在鎬, 군포 초등학교 2회 졸업)와 역시 군포초등학교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양태석(梁兌錫)이 있다. (황주공과 당정총친회의 양태부 증인)

한편 부곡동 산 78번지의 남원양씨 선영은 양성지의 셋째 아들 양찬과 그 후손들의 무덤으로 대개 1968년 서울시 목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옮겨온 것들이다.

10) 전주 이씨(全州 李氏)

시조 이한(李翰)은 덕망이 높고 문장이 탁월하여 신라 문성왕때 사공(司空) 벼슬을 지냈으며 그후 대대로 신라시대에 벼슬을 해왔다. 18세손 되는 이안사(李安社)는 대대로 전주에 살아온 호족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지주의 탄압을 규탄하자 지주가 군사를 휘둘러 보복하려하여 그를 피해 강원도 삼척으로 피했다가 다시 함경도를 거쳐 원나라 간동으로가 그곳에서 다루까지 벼슬을 지냈고 증손자 되는 이자춘(李子春)이 고려시대에 공을 세워 사복경(司僕卿)에 이르렀다. 이자춘의 아들, 즉 시조의 22세손 이성계(李成桂)에 이르러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고 배극렴(裴克廉)등 52명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 조선왕조를 창건, 전주이씨의 종시조가 되었다.

전주이씨는 조선 500년을 이끌어온 왕가이므로 가문의 번성기를 따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 전주이씨의 1백여 파중 으뜸가는 명가는 밀성군(密城君. 침=세종의 아들)파로써 6명의 정승과 3대 대제학(大提學)을 배출했으며,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정종의 아들)파가 부자 대제학등 3명의 대제학과 영의정(領議政) 1명을 내어 밀성군파에 버금간다. 덕천군파 다음으로는 3명의 정승을 배출한 광평대군파(廣平大君派), 정승 2명을 배출한 선성군파(宣城君派), 정승 1명과 술한 문신과 무신을 배출한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 등이 빼어나다.

전주이씨는 오리정승(梧里政丞)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인조때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칠기(鐵驥) 이범석(李範奭)장군 등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거북들을 배출하였다. 1585년(선조 18) 이수광은 별시문과(別詩文科)에

급제, 1627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여러차례 사신으로 명나라에 왕래, 당시 명나라에 와있던 이탈리아 신부에게서 『천주실의(天主實義)』, 『중우론(重友論)』을 얻어와 1614년 (광해군 6) 『지봉유설(芝峰類說)』을 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소개함으로써 실학발전의 선구자가 되었고 시문에도 능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군포에 세거해온 전주이씨는 조선 성종의 3남인 안양군의 후손으로서 안양군(安陽君)이 연산군의 학정에 대해 강한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을 때 서울에 있던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된 종남도정(從南都正) 익수(億壽)와 함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아래의 광정동에 은거하면서 이곳을 고향과 선영으로 정하게 되었다.

오늘에는 안양군 묘소만 원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월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 산74번지로 이장하였다.

11) 한산 이씨(韓山 李氏)

한산이씨는 길은 뿌리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한산이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장 공개의 시조는 고려 숙종 때 호족으로서 권지호장직(權知戶長職)에 오른 이윤경(李允卿)이다. 이윤경(李允卿)은 한산 지방에 토착 세거(土著世居)해 온 호족(豪族)의 후세로 고려 중엽에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정(戶長)을 역임했고 5대에 걸쳐 호장직을 세습하여 오면서 명분의 기틀을 다졌다.

그러나 시조라 할 중시조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아버지인 이곡(李穀)이다. 이곡은 당대의 대문장가이며 역동(易東) 우탁(禹倬),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더불어 경학(經學)의 대가였으며 고려 충숙왕 7년 문과에 급제하고 원나라 제과(制科)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도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이색이 1362년 홍건적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공을 세워 한산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한산으로 하였다.

한산(韓山)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본래 백제의 마산현(馬山縣)인데 신라 때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초에 한산으로 고쳤다. 1175년(명종 5) 감무(監務)를 두었고 홍산(鴻山)을 겸하였으며 후에 지한주사(知韓州事)로 승격되었다가 조선 때 한산군(韓山郡)이 되었으며 1913년 서천군으로 병합하여 지금은 한산면으로 남아있다.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고려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이색(李穡)을 비롯하여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계, 대문장가 이산해(李山海) 등으로써 이름난 한산이씨는 조선시대 상신 4명, 대제학(大提學) 2명, 청백리(淸白吏) 5명, 공신 12명과 문과 급제자 195명을 배출했다.

군포지역에 한산이씨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거주했는지는 안 수 없으나 고집룡 김수업

의 제상으로 불리웠던 이기조의 무덤이 경기도 장단에서 1672년 이곳 군포시 산천동으로 이장한 것을 보면 이 때를 전후로 이 곳과 관련을 맺은 것 같다.

12) 평택 임씨(平澤 林氏)

임씨는 당나라 문종(文宗 : 826~840) 대에 신라 흥덕왕(興德王) · 회강왕(僖康王) · 민애왕(閔哀王) · 신무왕(神武王) · 분성왕(文聖王) 때 한림학사였던 관급(八及)이 간신들의 침소가 있자 등래 8학사 중 한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왔으며 평성의 용주방에 정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임씨는 관급(八及)을 도시조(都始祖)로 하는 동계혈족(同系血族)이며 대종(大宗)인 평택 임씨에서 분과된 분직종(分籍宗)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임씨는 오랜 역사를 가진 씨족의 하나로 고려시대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본관은 평택(平澤) · 나주(羅州) · 진천(鎭川) · 옥진(蔚珍) · 예천(醴泉) · 부안(扶安) · 순창(淳昌) · 장흥(長興) · 조양(兆陽) · 은진(恩津) · 선산(善山) · 진주(晉州) · 옥구(沃溝) · 경주(慶州) · 옥야(沃野) · 전주(全州) · 임천(林川) · 임하(臨河) · 길안(吉安) · 밀양(密陽) · 보성(寶城) 등 30여 본이 전해지지만 몇 본이 현존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고려 문종 때 증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낸 임개, 그의 아들로 인종 때 상서호부판사(尙書戶部判事) 유문(有文), 명종 때 증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낸 민비(民庇), 원종 때 무신으로 권세를 떨친 연(衍)과 그의 아들 유무(惟茂), 의종 때 문인으로 강좌 7현(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일컫어진 춘(椿), 공민왕 때 대사성을 지낸 박(樸) 등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124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는데, 나주(羅州) 임씨에서 우의정 1명과 많은 현신이 나왔으며 그밖에 평택임씨 · 선산임씨 · 옥진임씨에서도 뛰어난 인물이 나왔다.

이 중에서 평택임씨는 문헌의 실적으로 세계를 상고할 수 없어 고려 말에 세자 전객령 겸 연희궁 부사를 지낸 임세춘(林世春)을 1세조로 하여, 누대에 걸쳐 세거한 평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세춘의 아들 재(梓)가 예의판서와 보문각 대제학을 지냈고 증손 정(整)이 조선 태종 때 예조판서에 올랐으며 현손 명산(命山)이 이조판서를 역임하여 가문을 빛냈다. 5세손 수창(壽昌)은 부총관, 6세손 규(珪)는 병조판서, 8세손 유명(有名)은 좌승지, 10세손 황(瑩)은 중추부영사에 올랐는데 임경업(林慶業) 장군은 그의 여덟 아들 중 넷째 아들이다.

평택임씨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선의 명장 경업(慶業, 1594~1646)이다. 그는 세춘의 12세손이며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났으며 무과에 급제 후 소승보권관, 첨지중추부사를 지냈고 1624년(인조 2) 정충신(鄭忠信) 휘하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

(振武原從功臣) 1등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는 도처에서 작국을 무찔러 영웅적이고 전설적인 용명을 떨쳤다. 1640년 안주목사(安州牧使) 때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주사상장(舟師上將)으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 명군과 내통하여 청군에 대항하려다가 이 사실이 탐지되어 체포되었으나 금고의(金郊罪)에서 탈출했다. 1643년 명나라에 망명, 명군의 총병(總兵)이 되어 청나라를 공격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1646년 인조의 요청으로 청나라에서 송환되어 모반선에 대한 친견(親覲)을 받던 중 죽음을 당하였다. 1697년(숙종 23) 복관(復官)되어 충주 충렬사(忠烈祠) 등에 배향되었다.

경업의 형 형업(亨業)도 병자호란때 모친상을 당한 관계로 피난을 못가 청나라 군대에 붙잡혔으나 청군이 '효자는 해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효성이 뛰어나 효자 충신의 정문(旌門)이 고향에 세워졌으며 숙종때 지평(持平)에 추증(追贈)되어 명망높은 평택임씨 가문을 더욱 빛냈다. 이 밖에도 평택임씨의 인물로는 계주목사 형수(亨秀), 인조 때의 광주목사(廣州牧使) 휘(鶴), 선조 때 이봉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여 청난공신(淸難功臣)에 오른 득(得)의(義), 세조의 충신으로 대사간을 지낸 수경(守謙), 영조 때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구출하려다가 귀양간 탁재 등이 있다.

1960년 국세조사에서는 72, 663가구에 인구 413, 101명으로 성별순위는 258성 중 제10위였고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에 총 46, 670가구, 194, 550명이 살고 우리나라 전체 성중 제10위였다. 임씨 집성촌으로는 전남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충남 부여군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달면 일원,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가 알려져 있다.

현재 군포에 살고 있는 평택임씨는 전객령공파 부사공파(典客令公派 府使公派)이다. 전객령공은 1세조 세춘(世春)이 고려 충렬왕 때 급제하여 세자 전객령을 지낸 것에서 이름한다. 군포의 평택 임씨는 1세 세춘으로부터 전객령공파 부사공파장인 임병희(林炳喜)에 이르기까지 23대라고 한다. 현재로부터 12대조인 귀현(貴賢)이 경주 혹은 광주 부근에서 군포 느타리골 이사하고 그 묘소가 산본동에 있었으나 도시개발 외중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로 선산을 이장하였다. 선산에는 귀현의 아들이며 병자호란시 순절하였다는 만화(晩華), 그리고 그 선일(善逸)의 묘소가 있다. 21)

13) 동래 정씨(東萊鄭氏)

동래정씨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斯盧)의 6부 촌장으로 정씨 성을 하사받았던 지백호(智白虎)의 원손(遠孫) 정희문(鄭繪文)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고려(高麗) 초에 보윤(甫尹)을 지낸 정지원(鄭之遠)을 일세조(一世祖)로 하며 누대에 걸쳐 정작 세기해 온 동래(東萊)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21) 『林氏先祖寶鑑』, 林氏韓國宗親大宗會, 1999.

동래는 부산직할시와 경남 양산군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던 지명으로 본래 장산국인데 신라 때 점령하여 거칠산군(居漆山郡)으로 고치고 경덕왕(景德王) 때 동래군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현종(顯宗) 때 울주(蔚州)에 편입시켰다가 1547년(명종 2) 부(府)로 승격시키고 1895년(고종 32) 관찰부(觀察府)를 설치하였으며 1903년 군으로 고쳤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부산부에 속하였고 부산부에 속하지 않는 구역과 기장군 일원을 병합하여 동래군을 이루었다. 그 후 대부분이 부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양산군에 편입됨으로써 동래군의 행정구역 명칭은 소멸되었는데 부산직할시에 편입된 대구산은 동래구에 속해있다.

동래정씨는 부산 양정동 화지산(華池山)에 자리잡은 2세(二世) 안일공(安逸公) 정문도(鄭文道) 묘소(墓所)에 대한 명당(明堂)의 전설이 아래와 같이 전해오고 있다. 그가 죽었을 때 밭아들 정목(鄭穆)이 장지(葬地) 분체를 고심하고 있다가 동래부사(東來府使)를 지내던 고익호(高益鎬)가 일러준 화지산에 장례를 치루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이곳에 와 보니 누군가가 무덤을 파헤쳐 놓았다. 기이하게 생각하고 다시 복원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분동을 참을 수 없었던 정목(鄭穆)은 밤을 세워 가면 숨어 지켜보기로 하였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타나 또다시 무덤을 파헤치며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딘데 한부로 건드려, 썩어도 금관을 붙어야 할 곳에…”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았던 정목(鄭穆)은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되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 “염려 마오, 황금빛 나는 보릿짚으로 관을 싸서 묻으면 도깨비들이 속을 것이오”하고는 사라졌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하였더니 과연 그 후부터는 무사하였다고 한다.

정목(鄭穆)은 고려 문종(文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역임하고 슬하에 아들 정제(鄭濟)·정진(鄭漸)·정택(鄭澤)·정항(鄭沆) 4형제를 두었으며, 정목의 아우 정선조(鄭先詔)는 호장(戶長)을 지냈고 그의 후손들이 동래(東萊)와 양산(梁山) 등지에 산거(散居)하면서 명문(名門)의 기풍을 다져왔다.

군포에는 속달리에 동래정씨 정광보 후손의 종택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속달리는 남양만에 배를 타고 온 지방민들이 과천을 통해 서울로 올라가던 교통의 요지였다. 따라서 외부와의 분철교류가 빈번했다고 보인다. 일제시대 철도가 개설된 후에 속달리에서 서울로 가려면 군포까지 도보로 가서 기차를 이용했고, 수원에서 출발하면 반원까지 도보로 가서 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종택은 최근 복원을 하여 깨끗하며 매심사(梅心舍)라는 현판이 있다. 매심사라는 현판은 추사의 글씨로 그 후면에 그 내력을 음각해 놓고 있다.²²⁾ 조선후기 실학이 번성한 안산을 인접해서인지 이 집안은 신지식에 일찍 접해 후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현재 이 동네엔 정씨가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22) 군포시 속달리 동래정씨 정준수의 증언이다.

承政院為直赴事今七月二十三日親臨春

塘臺秋列祀儀送命祭講試及時講居者通幼學等

直赴講殿試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勿尊新學默准此

咸豐二十七年七月二十三日

帖
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注書

注書任

동래정씨가 군포 속달리에 세거한 배경은 동래부원군인 정난중이 액전에서 상경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 공을 세워 이곳을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정착했기 때문이다. 원래 속달리는 현풍곽씨 등이 세거했으나 동래정씨 사패지로 인해 지금의 삼성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동래정씨는 대부분 노론이었는데 이 집안은 남인계통이었다고 하며 집안의 추수 경작지는 안산시 팔곡동·사사동·대야미·도마교동 등 인근에 넓게 분포하여 큰 세족을 이루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래정씨 종택이 소유한 고문서 등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정교선의 『몽유록』, 정조의 어보가 찍힌 『동몽선습』, 『대전회통』, 『남보』 등이 눈에 띈다. 원각사의 비문이 증조부의 글씨였다고도 하며, 시·서·예 등에 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다.

현원 속달리 동래정씨 종택의 뒷산에는 동래정씨 묘역이 있다. 동래정씨 묘역 및 정난중의 신도비 등은 경기도 기념물 제115호로 일명 동래정씨가묘(東萊鄭氏家墓)라고도 한다. 동래정씨 묘역은 약 1,000여 평으로 수리산(修理山) 능선을 따라 묘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아래로부터 선대 묘역이 모셔진 역장(逆葬)의 모습이 특색이다.

묘역에는 묘비 6기, 묘갈(墓碣) 1기, 신도비 2기, 장명등(長明燈) 4기, 문인석(文人石) 8기, 망주석(望柱石) 4기, 상석(床石) 4기, 향로석 4기·동자석 4기, 묘소 6기 등이 있다. 정난중의 묘는 부인 완산 이씨(完山李氏)와 쌍분인데, 1486년(성종 17년)과 1489년에 각각 조성하였다. 묘비(墓碑)는 135×44×20cm로 종형이수(鐘型貽首)의 형태를 이루며, 「유명조선국순성적리공신자헌대부정부우참판겸동지경연사동래군증시억혜정공지묘(有明朝鮮國純誠佐理功臣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同知經筵事東萊君贈諡翼惠鄭公之墓)」의 명문(銘文)이 있다. 또 양식이 동일한 부인 묘비에는 「정부인완산이씨지묘(貞夫人完山李氏之墓)」라는 명문이 있다. 묘비는 남근(南袞)이 찬(撰)하고 강징(姜徵)이 썼다. 상석은 164×16cm의 장대석 11개를 쌓았으며 장명등은 210cm 높이를 대석 위에 옥개석(玉蓋石)을 얹었다. 문인석은 높이가 각각 210cm와 146cm이다.

정난중의 신도비 총 높이는 214cm이나 비신은 194×80×26cm로 이수(貽首)가 정교하게 세겨져 있으며 4면의 당초문(唐草文)과 2단의 안상문(眼象文)을 조각하였다. 비문은 남근이 찬하고 강징이 썼는데 1525년(중종 20)에 조성되었다.

정광보의 묘갈은 2단의 기단 위에 귀부(龜趺)를 놓고 비신과 이수(貽首)를 얹어놓은 형식인데 귀부는 177×140×80cm로 조각이 섬세하다. 비문은 이행(李衍)이 짓고 글씨는 성세창(成世昌)이 썼다.

정광보(鄭光輔)는 정난중의 장남으로 창원도호부사·김례진관병마동첨절제사·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의 묘 역시 부인과 쌍분이며 묘표(墓表)는 179×53×18cm의 규모로 1525년에 조성되었다.

진면에는 「통정대부행창위도호부사김해진관병마동찰전제사정공지묘 숙부인전의이씨지묘(通政大夫行昌原都護府使金海鎮管兵馬同僉節制使鄭公之墓 淑夫人全義李氏之墓)」와 새겨져 있다. 장명등은 158cm로 안상문이 조각된 원형의 화상(火窓)을 이루며 문인석과 망주석은 각각 170cm와 163cm의 크기이다.

정광필의 묘는 부인과 쌍분으로 각각 봉분의 높이는 200cm이고 지름은 450cm의 규모이다. 묘비 전면에는 「유명조선국대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경영경연홍문관에문관춘추관상감사세자사증시문익정공지묘(有明朝鮮國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象監事世子師贈諱文翼鄭公之墓)」와 「정경부인은진충씨지묘(貞敬夫人恩津宋氏之墓)」가 새겨져 있다. 묘비의 크기는 173×50×18cm로 그 옆에는 장명등·상석·망주석·문인석 등을 배열하였다.

정광필의 신도비는 총 높이 417cm로 비신은 213×91×28cm이며 비문은 소세암(蘇世謫)이 짓고 이항(李滉)이 썼는데 1562년(명종 17)에 건립하였다. 정난중 묘 아래 있는 묘 역시 쌍분으로 묘비의 상석이 있다. 묘비는 총 높이 135cm로 비신은 115×46×13cm 규모인데 전면에 「조선국가산대부동지중추부사봉해군정공지묘 증정부인전주이씨지묘(朝鮮國嘉祥大夫同知中樞府使蓬海君鄭公之墓 贈貞夫人全州李氏之墓)」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동래정씨 묘역은 선대를 밑에서부터 안장하는 등 특색한 양식으로 조선시대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특히 묘비 상단의 문양이 러발선초의 양식을 보여 미술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조(朝鮮朝)에서 18명의 상신(相臣)을 비롯한 수많은 명신현관(名臣賢官)을 배출해 낸 동래정씨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안동김씨(安東金氏)와 더불어 유명을 떨쳤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충의열사(忠義烈士)가 배출되어 도덕과 학문이 뛰어났던 석학(碩學)들과 함께 명문 동래정씨의 가통(家統)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14) 신안 주씨(新安 朱氏)

시조 주희(朱熹)의 원향(原鄕)이 중국 신안(新安)이어서 신안주씨(新安朱氏)로 내려오던 중, 문공(文公)의 증손 한림학사 주잠(朱潛)이 송나라의 조정이 붕괴 침입으로 화의(和議)에 기울자 이문 개탄하며 1224년에 2남 1녀의 자녀와 문하생 엽공제(葉公濟) 등 칠학사(七學士)를 대동하고 고려로 망명하여 전라도 나주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분산하여 살면서 새겨지에 따라 본관을 능성(陵城), 전주(全州), 압해(押海) 등 여러 갈래였던 것을 조선 고종 때 원사부기록국장(元師府記錄局長)이던 주석면(朱錫冕)이 조정에 발의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주지(朱子) 후손들은 문공(文公)의 원향(原鄕)대로 신안(新安)으로 통일해줄 것을 상소하여 윤허가 내림으로써 신안 주씨의 복관(復貫)이 이루어졌다.



삼성사 원경

현재 신안주씨의 분파는 크게 형제의 순서대로 장계(長系), 중계(仲系), 계계(季系)로만 나누고 있다. 군포지역의 신안주씨는 정확하게 계보는 알 수 없지만 1960년 12월부터 1962년 4월까지 시흥시 남면 면장을 역임한 주경식(朱景植)이 있으며 부곡동 삼성마을에 주희의 사당을 짓고(삼성사) 주영호 씨(66세) 한 가구만이 14대째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안주씨가 군포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위의 군포지역에는 신기마을과 하부곡 지역, 속달동에 몇 가구 더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포지역의 신안주씨 종회도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수원지역의 주씨종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삼성사(三聖祠)는 주자의 진영(眞影)으로 모신 사우(祠宇)로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창건은 1882년 이 마을에 거주하던 주씨 문중의 유생 주정홍이 문중과 인근 사림의 도움으로 사우를 짓고 주자진영을 제주(祭酒) 임원회로부터 가져왔다. 그러나 주정홍이 죽자 삼성사도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1911년 이종만과 이 마을의 인사들이 중수하였다. 이후 삼성사는 이종만과 주낙흥 및 향리 유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운주석전제를 기행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우 일부가 붕괴되었고 주자의 영정도 불에 탔다. 이에 1952년 봄 문중 대표 주경식과 제장 박석오의 힘으로 복원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 사우가 오래됨에 따라 증건 위원회

를 구성하여 현 사무를 축조하였다. 제일(祭日)은 두 번으로 주자의 생신이신 음력 3월 9일과 주자가 돌아가신 음력 9월 15일이다. 제물(祭物)은 생식으로 육포, 호두, 은행, 밥 이렇게 4가지만 쓴다고 한다.

15) 경주 최씨(慶州 崔氏)

시조 최치원(崔致遠)은 울산 고려춘장 소벌도리의 24세손이며 신라 말기의 대문장기이다. 최치원은 869년(신라 경문왕 9)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을 간지 5년후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무랑 시어사에 이르고 자급어의를 하사 받았으며 제도행영 병마도총 고변의종사관을 역임하고 귀국하여 시독 겸 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이 되었으나 외직을 원하여 대신, 천령, 부성 등지의 태수를 역임하고 아손이 되었다. 그후 난세를 비판하여 전국을 유랑하다가 해인사로 들어가 은거하며 수도하다 63세로 생을 마쳤다. 그는 한시문집으로 『계원필경(桂苑筆耕)』(20권) 등의 명저를 남겼다.

경주 최씨는 26파로 나뉘었는데 그중 관가정공파(觀稼亭公派), 광정공파(匡靖公派), 정랑공파(正郎公派), 사성공파(司成公派), 화숙공파(和淑公派), 충렬공파(忠烈公派) 등의 6대파가 주축을 이룬다.

대표적 인물로는 고려 성종 때 문하시중을 역임한 최승로(崔承老), 고려 현종 때 평장사를 지낸 최항(崔沆), 조선 후기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崔濟愚) 및 그의 제자로서 동학의 제2세 교조인 최시형(崔時亨), 한말의 대표적인 위정척사론자인 최익현(崔益鉉) 등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16) 청주 한씨(淸州 韓氏)²³⁾

청주한씨는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기자의 이름은 서여(胥餘)·수유(須尤)이며, (殷)나라의 현인으로 주나라의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빼앗자 BC 1122년 동쪽으로 도망하여 조선에 들어와 기자조선을 건국하고, 팔조금법(八條禁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사신여부는 개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자조선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의 성(姓)이 청주한씨(淸州韓氏)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후 고조선 준왕의 세 아들 중 우량(友諒)의 후손이라는 한린(韓麟 : 853~916)이 청주 한씨의 시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여 향학(鄕學)을 일으키고 청주 방정리에 무농정(務農亭)을 세우고 농업을 권장하여 마침내 무농을 이루었는데, 이때

23) 청주한씨중앙총회(<http://www.chongjuhan.net/>).

왕건(王建)이 고려를 창업하는데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되었으니 벼슬은 삼중대광 태위(三重大匡 太尉)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조가 건원(甄元)을 정벌하여 청주 고을에 당도하자 한란이 군례(軍禮)를 갖추고 이를 맞이하여 창고에 비축한 곡식을 풀어 10만 군사를 배불리 먹이고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한란의 묘는 오늘날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산18에 있으며, 1987년 충청북도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되었다. 원래의 묘가 조선 1659년(효종10)에 노봉(盧峯)에 의해 파괴된 것을 후손들이 숙종 16년(1690) 봉분을 복원하였다고 전한다. 묘소에는 고려시대의 묘비(墓碑)와 상석(床石) 등이 현존하고 효종 때의 문인석(文人石)과 용마석(龍馬石)이 보존되어 있어 고려 초기 묘역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는 역사적 의의가 지닌다. 묘 바로 아래에는 영조 44년(1768)에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후손 한익모(韓翼森)가 찬하고 한광화(韓光晝)가 글씨를 썼으며 한덕필(韓德弼)이 전채(篆字)한 것이다.

시조인 한란이 청주 방정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후 자손들이 마침내 청주로 본관을 삼으니 혹은 상당(上黨) 또는 서원(西原)이라 함은 청주의 옛 지방이다. 선대로부터 한씨는 단일본이었으나 근세에 이르러서 (1) 예빈윤연(禮賓尹連)을 비조로 하는 안변(安邊) 한씨 (2) 평산백(平山伯) 후지를 비조로 하는 평산(平山) 한씨 (3) 평장사(平章事) 자화(自憲: 浚)를 비조로 하는 면천(沔川; 唐津) 한씨 (4) 시랑(侍郎) 언공(彦恭)을 비조로 하는 장단(長湍) 한씨 (5) 통사랑(通仕郎) 근(璵)을 비조로 하는 당진(唐津) 한씨 (6) 첨사(詹事) 원서를 비조로 하는 한양(漢陽) 한씨 (7) 중찬(中贊) 희유(希兪)를 비조로 하는 가주(嘉州) 한씨, 이상 7파가 본관(本貫)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의 부안(扶安), 양주(陽州), 금계(錦溪), 교하(交河), 신평(新坪) 등 본관을 달리했던 소문중(小門中)도 있었으나 현재는 평장사(平章事) 예(銳)를 비조로 하는 곡산 한씨(谷山) 한씨가 많은 수를 이루고 있으나 청주 한씨와는 본을 달리하는 씨족이다.

청주한씨 문중에서 군포에 거주하는 것은 장절공(襄節公) 한확(韓確, 1403-1456)의 아들인 치의(致義)를 중시조로 하는 장도공파(章悼公派)이다. 한확은 자가 자유(子柔), 호 간이재(簡易齋), 시호 양절(襄節)이다. 누님이 명나라 성조(成祖)의 비(妃)로 뽑혀 여비(麗妃)가 되자 1417년(태종 17) 진헌부사(進獻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이 되었다. 다음해 세종이 즉위하자 고부청사승습사(告訃請誦承襲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438년(세종 20) 중추원사를 거쳐 1439년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1440년 병조판서·함길도관찰사가 되고 1443년 한성부판사 1445년 중추원지사 겸 병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1451년(문종 1) 중추원판사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좌천성으로 수양대군(世祖)을 도와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우의정에 올랐다.

1455년(세조 1) 좌의정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에 책록되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개봉(改封)된 뒤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세조의 왕위찬탈을 양위(讓位)라고 설득시켰다. 돌아오는 도중 사하포(沙河浦)에서 격사하였고 1470년(성종 1) 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현재 군포시의 정주 한씨는 도장동에 70~80여호, 당정동에 40~50여호 세기하고 있다고 한다.

17) 남양 홍씨(南陽 洪氏)

남양홍씨는 동성동본이지만 조상을 달리하는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으로 크게 나뉜다. 당홍은 고구려때 당나라에서 귀화해온 홍천하(洪天河)의 후예이고, 토홍은 고려 고종조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낸 홍선행(洪先幸)의 후예로 9대 내지 12대손에서 문화공(文僖公), 정효공(貞孝公), 참의공(參議公), 주부공(主簿公), 대호군공(大護軍公)의 5파로 다시 갈라진다.

토홍 가문의 절정은 조선 중종 때 영의정에 오른 문화공(文僖公) 홍언필(洪彦弼)과 그의 아들 홍섬(洪澂)의 대라 할 수 있다. 홍섬은 1529년 선조대에 분과에 장원하여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하여 명상(名相), 청백리(清白吏)의 칭송을 들었는데, 부자가 영의정을 지낸 드문 기록을 세웠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림리 남양홍씨묘역은 홍언필, 홍섬, 우부승지 홍형, 이조·병조판서 홍담, 홍진도의 묘 11기 등 기념물들이 남아있어 1999년 4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